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희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Ames, IA
파견대학	Iow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5.08 - 2016.05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제가 다녀왔던 ISU는 Iowa주 중부의 Ames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College town인 만큼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어서 캠퍼스 안에서도 주로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동을 할 정도 이고요. 대체적으로 시설은 모두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나 기숙사들도 있었고 학교가 계속해서 Renovation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인구도 몇 안되는 작은 도시이다 보니 사실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큰 나무들과 넓은 풀밭 등 말그대로 자연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p>
2015-2학기 수업	<p>* ENGL 101 C</p> <p>미국에서의 첫 학기인 만큼 영어공부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생각에 신청한 과목이었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는데 섹션마다 수업 방식과 교수님은 천차만별 이고요. 정해진 교재를 기본으로 이론 수업이 진행되고 해당 단원이 끝나면 에세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한 학기에 총 4~5 주제로 에세이를 완성하게 되고 거의 매주 과제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한 4차례의 퀴즈도 있었고 마지막 에세이는 조별과제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Presentation도 해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쉬웠던 난이도에 실망이 컸던 과목이었어요. 조금 쉬어 가는 과목정도로만 생각하고 수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현지인 학생들과 한 단계 위의 수업을 들을걸 하는 후회가 적지 않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세이의 틀이나 형식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추천하는 과목 이에요.</p>

*RELIG 205

2015년 2학기 수강했던 수업들 중 교수님이 가장 좋았던 수업이었어요. 수업은 주로 PPT로 진행이 되고 3단원이 끝나면 퀴즈가 있어요. 한 학기에 총 4~5 차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강의식 수업이라 조별과제나 별도의 프로젝트가 없어서 상당히 편한 수업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종교들을 다루다 보니 내용자체가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은 총 50문제씩 3번이 있는데 모두 객관식이어서 큰 부담은 없었어요. 2권의 교재를 구입하라고 권유는 하시지만 A가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듣는 종교에 관한 수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살짝은 필요했어요.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공부해 두니 다음 학기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경지식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ECON 101

개인적으로 경제학공부는 좋아하지 않지만 전공과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수강했던 수업 이에요. 101의 기초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과목이었어요. 수업 방식은 모든 수업 내용을 받아 적어야 하는 동시에 교수님의 설명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식이었고 불시에 퀴즈도 있어요. 또한 조별로 배정된 TA와 함께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별도로 매주 1시간씩 Group Discussion에도 필수로 참여해야 했고요. 한 학기에 정규 시험은 총 3번이고 마지막 Final 때는 범위가 Accumulative여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해야 했어요. 그리고 학기 시작 초(Pretest)와 마지막(Posttest)에는 각각 비정규시험을 1번씩 총 2번 치루어야 해요. 물론 두 시험 모두 성적에 반영됩니다. 경제학 공부에 열의가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정말 한학기 내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수업이었어요.

*ADVRT 230

평소에도 계속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이어서 이번 기회에 수강하게 되었어요. 교수님도 친절하고 정말 좋으셨고요. 동양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업시간의 상당 자료도 그에 대한 것이었어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PPT 위주로 진행되지만 수업 시간 도중엔 토론도 진행되어요. 수많은 다양한 나라들의 광고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주 1번씩 퀴즈가 있어서 항상 교재를 읽어야 해요. 몇차례 수요일 마다 광고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과 스카이프를 조언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이 가지기도 하고요. 학기가 반정도 지나면 모두들 각자의 광고

	<p>포스터나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엔 모든 제출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두와 공유하게 되고요. 시험은 총 3번이며 객관식과 에세이가 섞여서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에세이의 주제가 꽤 까다로워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시험이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창의적인 것들에 많이 노출 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어요. 평소 다양한 시각자료와 광고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참고로 이 과목 역시 미국의 문화, 미디어, 정치에 대한 배경지식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자주 있었거든요.</p>
<p>2016-1학기 수업</p>	<p>*THTRE 106</p> <p>두개 학기를 통틀어서 교수님이 가장 좋은 수업이었어요. 연극 예술 분야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서 수업을 듣는 내내 덩달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 수업은 모든 교수님의 설명을 직접 듣고 받아 적어야 해요. 한 권의 교재를 제외한 별도의 수업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출석과 노트 필기가 중요시되는 과목 이에요. 학기 중에 총 3번의 라이브 공연을 보고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에세이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형식은 교재를 구입해야 알 수 있어요. 시험은 총 3번이 있고 마지막 Final은 역시 Accumulative 이지만 수업만 잘 듣고 필기하면 어렵지 않아요. 수업 중에 많은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어 흥미로운 수업이었어요. 잠시 쉬어 가는 교양수업으로 추천합니다.</p> <p>*MUSIC 102</p> <p>수강신청 마지막 날까지 듣고자 했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던 수업이었어요. 평소 음악 이론에 관심이 없어서 첫날부터 걱정했던 수업이었고 끝까지 걱정하게 됐던 수업이었어요. 전공도 아닌데 정말로 한학기 내내 공부를 놓을 수가 없는 수업이었네요. 시험이 한학기에 무려 6번이나 있어서 3단원이 끝나면 곧바로 한번씩 시험을 쳤어요. 수업은 보통 PPT로 진행이 되는데 진도가 너무 빨라서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3단원이 모두 끝나요. 평균 2주정도에 한번씩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비싼 교재를 한권 구입해야 하는데 거의 매일 같이 그 교재를 읽어야만 뭐라도 알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총 8번의 콘서트에 참여해서 확인을 받아야하고, 지정 좌석제라서 TA분들이 출석을 귀신같이 체크하십니다. 교양임에도 진짜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고 출석도 중요합니다. 정말 음악의 기초에 관심이 있다면 더없이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지만, 저처럼 음악의</p>

이론이나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심하게 추천하지 않는 수업입니다.

*ECON 102

이번 학기도 역시 전공과목으로 수강했던 수업 이에요. Brazilian 교수님 이셔서 Accent 탓에 수업을 알아듣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업은 주로 PPT로 진행이 되고 한 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교재의 해당 부분을 모두 정독하고 퀴즈를 쳐야 해요. 물론 성적에 반영이 되고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한 단원을 마치면 불시에 수업 도중에 퀴즈가 또 있고요. 개인 과제로 온라인으로 단원 마무리 퀴즈가 한 번 더 있어요. 평균적으로 각 Chapter당 퀴즈가 3번씩 있어요. 진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보통 한 학기에 11개의 단원을 배우니까 퀴즈만 총 33번을 봐야 하는 게 되겠네요. 당연히 모든 퀴즈가 성적에 반영되어요. 정규 시험은 총 3번을 치루게 되는데 Final이 Accumulative 였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교수님도 자신의 수업 시험 난이도가 어려우니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수업을 들으라고 첫 시간부터 경고하십니다. 경제학에 흥미가 많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은 경우에만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COMST 101

평소 다양한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수강했던 과목이었어요. 학기 초에 퀴즈가 한번 있었고, 수업은 주로 PPT로 진행되고 대강의식의 과목이어서 250명 남짓이 모여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물론 PPT 자료는 교수님께서 온라인에 올려 주시지만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이해해야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까지도 모두요.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맥락 자체가 끊겨버려서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학자들의 이론과 해당 연구를 영상으로 자주 보여 주시는데 모든 자료가 다 시험에 출제가 되니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은 총 4번이 있는데 수업시간 내내 집중을 하고 교재를 모두 정독한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험문제를 딱 보고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수업시간 이외에 별도로 여러가지 연구에 참여하거나 학자들의 연구 서적을 읽고 퀴즈를 쳐서 모두 수행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 부분이 과제로 성적에 반영이 되고요. 수업 중에 조별과제가 없어서 편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웠던 수업이었어요. 교재를 완전히 정독하고 모든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Orientation</p> <p>학기 시작 전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크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Social night event도 있고, 현지에서 쓸 수 있는 Debit card를 만들기도하고, 학교에서 사용 할 수 있는 ID card를 등록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탐방하거나 건강체크도 하고요. 저는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학기가 시작 되기 전이라서 여유롭고 시기상 날씨도 상당히 좋았고요.</p> <p>*Des Moines Tour</p> <p>학기 초 즈음에 ISSO라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에요. 다같이 버스를 타고 Iowa 주의 주도인 디모인에 가서 갤러리도 방문하고 물에가서 그동안 필요했던 것들도 사고 점심도 먹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저기를 둘러 볼 시간이 살짝 부족했던 게 아쉬웠을 정도였고 큰 물이 없는 작은 Ames와는 다른 풍경이 다녀온 후에도 계속 그리웠네요.</p> <p>*Winter Break Orlando Trip</p> <p>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갈 곳 없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ISSO에선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일주일에서 열흘동안 매번 다른 지역에 투어를 하는데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주로 여행을 가서 이것 저것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아요.</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Ames는 겨울이 정말 추운 도시예요. 가을학기는 10월 정도 까지만 따듯 선선한 날씨이고 11월의 시작과 함께 추워 지기 시작하다가 1월달에는 체감 최저기온이 영하40도 가까이까지 내려갈 만큼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그냥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름 옷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한 번도 못 입었던 옷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두꺼운 겨울 옷들과 눈이 많이 와도 걷기에 지장이 없는 부츠로 대부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딱 좋은 날씨라고 하면 가을학기의 8월 말부터 10월, 봄학기의 4월 중순부터</p>

	<p>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날씨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 할 때에 학기가 끝이 나서 귀국을 해야만 했던 게 많이 섭섭했네요. 튼튼한 겨울 부츠와 패딩을 많이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해요!</p>
안전	<p>작은 도시인 만큼 정말 안전한 도시예요. 제가 있던 동안에도 크게 별다른 위험한 일들이 없었고요. 경찰들도 매일 시간마다 정찰을 다니기도 할 뿐더러, ISU Alert 라는 기능을 등록 시켜 두면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주말을 즐기는 탓에 어두워졌을 때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추천 하지는 않아요.</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저는 기숙사 계약 문제가 잘못 되어서 신청했던 기숙사는 커녕 출국 당일 날 까지도 기숙사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계약들은 꼼꼼히 읽어 보시고 본인이 몇 번 더 체크하셔야 해요. 운이 좋게도 출국 바로 다음 날 빈자리가 있었던 Maple이라는 Residence hall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저는 Co-ed층에 배정을 받았는데 복도의 한쪽 면은 여자, 반대쪽 면은 남자 학생들이 지내는 거예요. 한 쪽당 화장실과 샤워실은 각각 2~3개씩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했구요. 시설은 괜찮았지만 주로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기숙사여서 거의 매일 조용할 날이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목요일부터는 학생들이 몰래 술을 사거나 친구들을 데려와서 방마다 파티가 있어서 잠을 자기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용한 곳을 선호하신다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심지어 규칙상 3주나 되는 겨울방학에도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겨울방학 내내 대신 지내야 할 곳을 찾느라 상당히 애를 먹기도 했고요.</p>
식사	<p>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제가 지내던 기숙사는 Meal Plan이 의무여서 할 수 없이 캠퍼스 내의 Dining hall에서 식사를 했지만, 정말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종류도 종류지만 음식들이 그다지 건강한 편도 아니고 대부분의 현지인 학생들도 밀플랜을 구입해 놓고도 학기 말이 되면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밀플랜을 면제받고자 학교의 Dietitian과</p>

	<p>ISU Student Health Center의 Physician과도 몇차례 상담을 하고 일주일간의 식단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제 받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밀플랜을 구입해 상당한 돈낭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 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친구들 경우를 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로 그 쪽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p>
교통	<p>저는 On-campus Residence Hall에 살아서 딱히 교통편을 이용해서 통학을 해야하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Ames안에서는 ISU ID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Cyride라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주로 Walmart, Target, Hy-vee를 갈 땐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주말이나 특정 연휴기간에는 배차 간격이 정말 크거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버스 시간표를 잘 확인해야해요. Mystate라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좀더 수월하게 버스 시간표를 확인 할 수도 있고요!</p> <p>하지만 지리적 위치상 다른 도시를 나갈 때는 차가 없으면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그나마 가까운 Des Moines에 갈 때에도 Jefferson Line 고속 버스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데 버스가 자주 있지도 않고, 매번 좀 더 큰 도시에 나가고자 할 때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p> <p>Thanksgiving break 때 친구들과 고속버스를 타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시카고에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편도로만 9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여행 기간 중 거의 하루는 통으로 오고 가는 시간에 다 쓴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중간에 환승도 해야하고요. 티켓을 잘 사서 왕복으로 버스비는 거의 \$90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p> <p>만약 면허가 있으시다면 국제면허증을 준비해서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대부분의 미국이 그렇지만 차가 없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Ames에서 눈이 정말 많이 오거나 버스가 아예 운영하지 않는 날에는 밥을 먹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친한 친구가 중간에 차를 구입해서 그나마 이곳 저곳 다닐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8만원 + 75만원	저는 비행기 티켓을 왕복으로 구매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왕복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요.
Fees	Standard Technology fee - \$115 Health fee - \$98 Activity and Service fee - \$322.95	Tuition Fee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사항 이에요.
보험료	<i>\$599 + \$892</i>	ISU는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사야해요. 여러가지 보험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긴 했지만 가격은 비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숙소	\$2,468 + \$2,448	두 학기 모두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식비	\$1,513.50 + \$1,513.50	구입했던 각 학기 별 밀플랜의 가격 이에요! 학교 외의 다른 곳에서 지불했던 식비를 합하면 더 나오겠죠?
교통비	\$250	Break에 여행 다닐 때 지출했던 대략적인 교통비에요.
책값	\$450 + \$330	수강하는 과목마다 상이해요!
기타1	\$90	약값
기타2	\$55	Cycash 및 Printer 이용
합계	-	-

5. 출국 전 준비사항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숙사 계약 문제가 잘못되어서 출국 당일 날 까지도 안절부절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출국 전에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국에 혼자서 파견되는 것이라 보니 스스로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일처리를 확실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운전면허증도 소지하고 계시다면 정말 꼭 국제면허증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면 진짜 좋아요. 아무래도 땅도 넓고 캠퍼스의 지리적 위치상 차가 없으면 기본적인 문화 생활은 커녕 두 학기 내내 색다른 메뉴의 식사를 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Ames의 날씨 탓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날이면 버스를 타고 집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두학기를 지내면서 Student Health Center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약을 자주 샀었는데, 한국에서 가져간 약들과 비교하면 현지의 약들은 효과가 잘 없는 것 같아요. 타이레놀이나 소화제만해도 한국에서 챙겨간 약들을 다 먹고나서 현지 약국에서 약을 사야 했었는데 약효가 없어서 약을 좀더 많이 챙겨서 올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 Health Center에서 진료 후에 처방 받았던 약들까지도 내가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 받은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들지가 않아서 약을 복용하면서도 거의 한달 내내 아팠던 기억이 있네요. 학교 내에 위치한 Health Center가 정식 병원 같은 느낌은 아닌데다가 찾아보니 평판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약은 한국에서 충분히 챙겨서 가시는 편을 추천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한테 교환학생 파견기간 9달은 말 그대로 꿈만 같고 정말로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1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동경해오던 해외문화를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도 했고, 혼자서 타국에 가서 이것 저것 부딪혀보고 생활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배운 점이 많아요. 미국에 다녀오기 전보다 훨씬 성숙해지고 여유가 생긴 긍정적인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던 점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뿌듯한 점이고요.

또 한가지 좋았던 점을 꼽으라면 현지에서 새로 사귀었던 친구들 생각이 가장 많이 나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저는 운이 좋게도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룸메이트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둘은 공통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 취미, 성격, 흥미 등등 단 한번도 다툰 적이 없었을 정도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았고, 단지 그냥 같은 방에 사는 '룸메이트'를 넘어서 종종 새벽까지 서로의 깊은 속마음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픈 날이면 하루 종일 옆에서 간호해주면서 있어 주기도 했어요. 수업이나 서로 바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룸메이트와 같이 했었는데 서로 너무 깊은 정이 들어 버려서 룸메이트가 저에게 현지 학교로의 편입을 강력하게 권유하거나 저의 출국 전날 몇시간이고 계속 울어서 달래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9달 동안의 추억보다도 룸메이트를 포함한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자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가 다들 각자의 나라에 있고 학교도 다른 탓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조차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니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 이에요.

봄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워하며 지냈던 나날들도 적지 않았을 만큼 아홉 달이 너무 짧았고 이런 기회가 또다시 왔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정말 큰 추억을 만들었고 동시에 이번 교환학생 파견 경험을 새로운 계기로 이후에 있을 더 많은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친구들과 Des Moines의 갤러리에 갔을 때.



룸메이트와 Beauty and the Beast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Thanksgiving Break 시카고 여행



처음으로 아이스하키 게임을 보러 간 날



Spring Break 미네소타 여행



출국 전 룸메이트와의 추억 만들기